

20~80대 1만명, 실종자 가족 고통 나누며 청소·급식 봉사



“TV만 보고 있을 순 없죠” 세월호 침몰 7일째를 맞은 22일,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 앞에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식사와 음료 및 생필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힘 보태는 자원봉사자들

세월호 참사 7일째를 맞은 22일 진도실내체육관에는 간간히 실종자 가족들의 호느낌만이 들릴 정도로 적막감이 휩싸여 있다. 연단 위 설치된 화상 시스템에서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해경, 군, 민간장수부 등이 맴돌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없고 시신 인양에 따른 사망자 수만 늘면서 점점 희망의 끈도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만이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마지막 남은 힘을 내고 있는 가족들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봉사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죄인이 된 심정으로 여기 왔어요. 이틀도 밝히고 싶지 않고 사진 촬영도 거부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시 체육관 이곳저곳을 청소했다. 체육관 내외에서 자원봉사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은 한사코 이리나 저리나 얼굴을 알리는 것을 피했다.

어린 학생의 생각을 모르 채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숙연한 마음으로 맑은 일만 하겠다는 것이다.

‘세탁서비스’ ‘혈당 체크’ 팻말 들고 체육관 순회

진도 청년회의소, 24시간 물품지원 천막 운영

자원봉사자들은 ‘세탁서비스’, ‘혈당 체크’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체육관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배려하기도 했다.

20대 대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체육관을 찾은 이들은 가족들과 되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전한다. 눈을 마주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는 이유다.

광복항 실종자가족 신원확인실 뒤쪽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오모(85) 할머니는 “유족들이 서럽게 울고 가는 이곳이 더러우면 안 될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청소한다”고 말했다.

구호물품도 잇따르고 있다. 소뻘을 고아 담은 생수통에서 속옷에 이르기까지 구호물품도 다양하다.

김병철(37) 진도군 방범연합회 사무국장은 “하루 1t 트럭 3대 분량씩 구호물품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핸드폰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주에서 모금을 통해 이를 전달할 단체도 있다.

하상용(54) 사단법인 광주재능기부센터장은 “19일부터 이틀간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 글 게시를 통해 420여만원을 모금해 충전기 등을 구입한 뒤 남은 돈을 기부했다”며 “선뜻 100만원을 내놓은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도군민들도 실종자 가족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 진도청년회의소 회원들은 지난 17일부터 회원 50여명이 교대로 24시간 물품지원 천막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박용환(40) 진도청년회의소 회장은 “내 새끼가 저러고 있는데 무슨 밥이 들어가겠느냐며 밥 한 숟가락 못 뜨는 가족들을 보면 헤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미안해 했다.

정부의 뒷북 대응과 어설픈 대책 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백희준·임준표·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전국 각지 쏟아지는 온정

칫솔·샴푸...하루 8t 트럭 4대 응원 메시지까지 우체국 마비

정몽준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에 대한 파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사고 현장에는 우체국이 마비될 정도로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닿지하고 있다.

진도우체국의 경우 전국에서 쏟아지는 위문품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난주에는 주말도 반납한 채 전 직원이 근무했다.

22일까지 진도우체국에 도착한 위문품은 등기로 온 것만 3300상자에 달한다.

일반우편으로 온 것은 집계할 수조차 없다.

진도우체국에 도착한 한 택배상자에는 ‘칫솔, 샴푸, 비누, 물티슈, 단원고 학생 여러 분 무사히 구조되길 기원합니다. 수원 천천고 1학년 5반’이라는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물품이 70%에 달하고 여성단체나 봉사단체 등도 많은 구호품을

보내고 있다는 게 우체국측 설명이다. 평소 하루 8t 트럭 1대 정도 처리하는데 요즘은 4대 분량도 넘는다.

한 직원은 ‘기적처럼 태어났으니 기적처럼 돌아오라’라는 감동적인 문구도 적혀 있다고 했다.

위문품은 진도군청 주민복지과로 보낸 뒤 현장 자원봉사자에게 전달된다.

사고가 발생한 진도와 목포 시민도 구조대와 사고 현장에 나온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풀고 있다.

진도를 한 가게 문 앞에는 ‘문 닫은 시각이라도 물건을 필요하다는 전화를 주면 나오겠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가 하면, 목포시는 ‘살신인인’ 승무원인 고(故) 박지영(여·22)씨의 빈소를 마련해 주고 생존자들에게 구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도=박현영·백희준 수습기자 bhj@

‘무사귀환’ 촛불 전국 확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기도회가 사고 1주일째인 22일 곳곳에서 계속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에서는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 20여개로 구성된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소속 500여명이 단원구 호수동 25시 광장에서 7번째 촛불기도회를 연다.

이들은 사고 당일인 16일부터 매일 슬픔에 빠진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다.

안산지역 교원과 학부모가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묵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중앙역 인근에서 닷새째 촛불을 들어온 민주노총 안산지부도 같은 곳에서 또 한 번 촛불을 켜고 소원지를 내건다.

전날인 21일부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부산여성회는 매일 오후 7시 부산역에서 모이기로 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도 크라이스트처치 푸조센터에서 한인 시니어사랑회 회원 100여명과 함께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에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동 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